

경제

광산업체들 뭉쳐 “해외시장 뚫자”

컨소시엄 구성... 베트남·美 개척

러시아·말레이시아 진출 모색도

광주지역 광 관련 업체들이 공동으로 해외 특세시장 개척에 나섰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과 생산, 마케팅에서 대기업에 밀린 지역 광산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시장 공략을 놓고 원원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27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광응용, 광통신, LED 등 분야별 특색이 있는 광주지역 광 관련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베트남·미국·캐나

다 등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진흥회는 오는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광주지역 광산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해외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을 방문한다.

이번 무역사절단에는 글로벌광통신과 신한포토닉스, 고려오토론, 선일텔레콤, 시티네트웍스, 룩스노바, 임테론, 포토닉스트레이드그룹 등 8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광통

신, 광응용, LED 등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북미지역에서 수출 상담회를 열어 공동 수출, 공동 생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도시환경이엔지, 웨이브시스템, 포에프, 포토닉스트레이드그룹 등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공동 마케팅을 폈다. 이들은 태양광과 광통신, LED 전문 업체들로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 대처하고 있다.

특히 ‘한-베트남 국제 광산업 로드쇼’에 참가해 녹색 조명(Green lighting)과 에코-에너지, 광통신 부스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했다.

러시아와 말레이시아 시장을 겨냥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러시아 에너지자관보 등의 광주 방문 당시 간담회 참석했던 LG이노텍·광주인탑스·이노센코리아·유양디엔유 등 일부 업체들은 러시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종득 광산업진흥회 사무국장은 “특색있는 기술력을 가진 각 분야의 광 관련 업체들이 뭉쳐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특세 시장을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 ‘CJ 오 슈퍼레이스’ 공식 타이어 지정

(국내 자동차 경주대회)

금호타이어가 국내 자동차 경주 대회인 ‘CJ 오 슈퍼레이스(O Super Race)’의 공식 타이어로 지정됐다.

국내 최고 권위의 레이싱 대회 중 하나인 CJ 오 슈퍼레이스는 배기량별로 슈퍼6000, 슈퍼3800, 슈퍼2000, 슈퍼1600 등 4개 클래스로 나뉘며, 금호타이어는 이 중 대회 상위 클래스인 슈퍼6000과 슈퍼3800의 공식 타이어로 선정됐다.

금호타이어는 1992년부터 국내 모터스포츠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1999년 국제대회인 창원 F3 공식 타이어 공급을 시작으로 유로F3, 마스터즈F3 등에 참여해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최근 이태리F3에도 공식 타이어로 선정돼 F3 시장 점유율도 기존 30%에서 40%(공급수량 기준)로 늘어 세계 1위



27일 오전 금호타이어 서울사무소에서 금호타이어 조동근(오른쪽) 마케팅담당 상무와 CJ오소프팅 신장영 영업지원팀장이 ‘CJ 오 슈퍼레이스(O Super Race)’ 대회 후원 계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1992년부터 국내 모터스포츠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1999년 국제대회인 창원 F3 공식 타이어 공급을 시작으로 유로F3, 마스터즈F3 등에 참여해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최근 이태리F3에도 공식 타이어로 선정돼 F3 시장 점유율도 기존 30%에서 40%(공급수량 기준)로 늘어 세계 1위에 위치한 오토플러스 서킷에서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항공화물 운임 ‘국제담합’ 항공사 1200억원 과징금

공정위 16개국 21개사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국 21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한국발 노선과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 1999~2007년 유통화물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항공화물 운임 국제담합에 대해 정식 심판결자를 통해 일괄적으로 조처를 한 세계 첫 사례이다. 외국은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항공화물 운임 국제담합에 참여한 항공사는 국적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곳과 일본항공, 타이항공, 에어프랑스, KLM항공, 루프트한자 등 15개국 외국 항공사 19곳이다.

공정위는 최대 7년여에 걸친 담합으로 인해 영향받은 매출액은 6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유통화물료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으로, 항공사들은 관행상 할인되지 않고 소비자의 반발도 덜한 이 할증료를 이용해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전세계 항공사들은 1990년대 말 항공화물 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통화물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담합이 확인됨에 따라 국적사인 대한항공에 487억원, 아시아나항공에 2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남뉴스

Table with exchange rates: 코스피지수 1,607.50 (+25.38), 코스닥지수 473.32 (+10.32), 금리 (국고채 3년) 3.60% (-0.01), 원·달러 환율 1,224.00원 (-29.30)

美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기아 쏘울·포르테 ‘최고차’



쏘울

포르테

기아자동차의 크로스오버차량(CUV) 쏘울과 준중형 세단인 포르테가 미국에서 잇따라 호평을 받아 브랜드 이미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아차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인 에드먼즈닷컴은 ‘2010 소비자 평가 최고차량상’에서 1만5000달러 이하 최고 세단에 포르테를 선정했다.

에드먼즈닷컴은 포르테가 혼다와 도요타가 영위해 차지할 것 같은 소형 세단 급에서 빠르게 자리 잡은 모델이라며 매력적 외관과 인테리어, 다양한 편의사양 등으로 높은 가치와 품질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쏘울도 미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인 캘리블북의 ‘1만8천달러 이하 10대 멋진 신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양 웹사이트는 운전자를 상대로 차량의 성능과 안락성, 연비, 인테리어와 디자인, 드라이빙 감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품질을 평가한다.

쏘울은 올해 초 미 자동차 웹사이트인 카즈닷컴의 ‘2010 최고 해치백 모델’, 에드먼즈닷컴-패러러츠 매거진이 주관하는 ‘2010 최고 패밀리카’, 마더프루프닷컴의 ‘2010 최고 가족차’ 등에 잇따라 선정되며 호평을 받았다.

포르테는 지난해 미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2010 최고 안전차량’에, 지난해 12월에는 미 자동차전문 웹사이트인 니다가이드닷컴으로부터 ‘2009 올해의 차’로 선정된 바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 탄핵 가결 집행부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금호타이어 강경과 노조원들이 법원의 ‘탄핵 무효’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찬반투표를 강행해 현 노조 집행부 탄핵을 가결했다.

집행부는 이에 반발, 법원에 ‘탄핵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노조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금호타이어 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노조 강경과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가 전날인 26일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핵 찬반투표를 한 결과, 전체 조합원 3547명 가운데 3090명이 투표에 참여해 80.68%인 2493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565명에 그쳤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현 집행부에 대한 업무정지와 함께 조만간 지방부를 의장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치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 광주지법에 ‘탄핵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가 주도한 이번 탄핵 사태가 새로운 집행부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5일 현 노조 집행부가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 자격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탄핵에 관한 임시총회 결과가 가결로 결론나더라도 탄핵의 사유로 보기 어려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기업들 “3분기 경기 좋아진다”

광주·전남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3·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119로 나타났다.

이는 5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웃도는 것이며 지난 2분기(114)보다 5포인트 상승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감이 높고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수출(108→120)과 내수(112→116)가 지난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설비가동률(113→118)이 향상되고 생산량(113→122)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쌍수 한전사장 來光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8~29일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한다.

김 사장은 2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전 광주전남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특별강연한다. 29일에는 직원들과 함께 담양 가마골 산행도 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건물매매. 위치, 면적, 용도, 평당금액, 임대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매도·교환, 주택·아파트·임대. 부동산 전문회사, 금당공인중개사.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제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데이터베이스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